



국화 매력에 흠뻑 '2013 대한민국 국화대전' 개막을 사흘 앞둔 22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형형색색 가을빛으로 물든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다. 국화대전은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음주운전 연간 1만명

올들어 벌써 8398건...하루 30명 적발
벌금만 200억대...음주사고도 540건

'도로 위 살인 행위'라는 음주운전을 거리낌 없이 하는 광주 시민들이 하루 평균 30명, 한 달에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가 줄을 잇는데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만연하자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무색할 정도다. 추세대로라면 광주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연간 1만 명이 넘는 음주운전자 적발될 '벌명에스러운 기록'도 남길 처지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21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건수는 8398건. 하루 평균 28.6명, 한 달 평균 858명이 적발됐다는 얘기다. 통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이하의 수치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4312건, 0.1% 이상의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된 것도 4086건에 달한다. 만취한 채 대낮에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2일부터 3개월간 193건이 적발됐다.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운전면허 보유자는 82만7849명, 98.5명 당 한 명 꼴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장롱' 면허자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속 기준(0.05% 이상) 이하 수치로 나와 가까스로 '훈방' 조치된 음주 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음주 운전자는 훨씬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광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54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1031명이 다쳤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653건이 발생, 23명이 숨지고 1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7월 4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SM5 승용차와 주유소에서 나오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해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최모(59)씨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지난 2월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던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최모(여·55)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최씨가 숨졌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모양새다. 당장, 통계로만 보면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010년 10

■ 광주·전남 음주운전 적발 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현재
광주	9,635	8,478	7,954	8,398
전남	16,007	11,802	9,954	8,567

■ 광주 2013년 7월 12일 이후 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7월 (12일~)	8월	9월	10월 (~20일)	계
73	46	33	41	193

월 말까지 적발한 음주 단속 건수는 7665건, 2011년 6968건에 머물렀다. 지난해도 10월 말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7954건 수준이었다. 이 수치대로라면 올 해 말이면 사상 처음 1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적발자들에게 1인당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가정하면 이들이 낸 돈만 167억원이 넘는다. 음주 수치 등 적발된 운전자마다 벌금은 다르게 부과되지만 통상 면허 정지의 경우 300만원 이하, 취소 수치가 나온 음주 운전자들은 그보다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낸 벌금은 200억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전남지역도 비슷해 올 들어 21일까지 8567건의 음주 운전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중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치가 나온 건수만 506건에 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림
늦가을남도역사·문화 체험
2013 가사문화권 한마당

11월 9일 광주 호수생태공원·담양 가사문화권 일대

잊혀져가는 농촌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2013 가사문화권 한마당'이 11월 9일 광주호수생태공원과 담양군 남면 가사문화권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한마당은 크게 ▲자전거타기(5km) ▲걷기(2.5km)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참가비 무료)

자전거타기 행사는 광주 호수생태공원에서 시작해 충효교~가사문화관 삼거리~지곡리 삼거리~서산교~금산교~송강로~충효재~충효왕버들 구간에서 열립니다. 걷기 행사 역시 광주 호수생태공원을 출발해 환벽당 삼거리~환벽당길~평도 들녘~충효분교~충효생길~충효왕버들을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옵니다. 백일장 행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늦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과 함께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3년 11월 9일(토) 오후1시
- 장 소: 광주호수생태공원, 담양가사문화권
- 종 목: 자전거타기, 걷기, 백일장대회
- 참가비: 전 종목 무료
- 주 최: 광주일보사
- 주 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트레킹협회
- 후 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문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062-220-0541

기아차 광주공장 '올 뉴 쏘울' 출시 年 19만대 생산 '62만대 증산' 가속 광주 수출 효자·지역경제 새 활력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 62만대 생산체제 가동 이후 첫 신차인 '올 뉴 쏘울(All New Soul)'을 22일 출시했다. 기아차가 62만대 증산 효과에 기대 신차의 2014년 생산량 및 판매목표량(19만대)을 지난해보다 3만5000대 가량 늘리면서 광주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5년 만의 쏘울 후속모델 '올 뉴 쏘울' 신차 발표회를 열고, 판매에 돌입했다.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쏘울'은 기아차가 지난 2010년 개발에 착수, 44개월 동안 2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최신작이다. <관련기사 8면>

광주공장의 주력 상품인 1세대 '쏘울'의 성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차인데다, 62만대 생산체제 가동 이후 출시된 첫 신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광주지역 수출 효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15만3817대가 생산된 쏘울은 이중 14만8624

대가 세계 시장으로 수출됐다. 기아차의 수출 차종이 대부분 목포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수출액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미 북미시장 수출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생산된 '올 뉴 쏘울'은 현재까지 1만6000대가 목포항을 빠져 나갔다. 광주공장의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 기아차는 내년 '올 뉴 쏘울'의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3만5000대 가량 높게 잡았다. 대당 2000만원으로 가격을 매길 경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판매액은 7000억원이나 불어난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쏘울'

이 국내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거둔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올 뉴 쏘울'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4 대학원 신입생모집

신화대학교 특별전형
2013년 11월11일(월)~22일(금)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2013년 12월 2일(월)~10일(화)

신화대학교
입학문의 학부(062)605-1114
대학원(062)605-111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www.kimex.or.kr

201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2013.10.25(금) ~ 31(목) 7일간 전라남도 장흥군 천관산 일원

몸과 마음의 치유, 통합의학

국내·외 유명 병원이 참가하는 무료검진 프로그램 | 대한민국 최고 명의·명사의 건강 이야기 |

통합의학관: 전문 코디네이터의 생생한 통합의학 이야기
진료체험관: 국내외 유명 병원의 다양한 통합의료 체험
협회단체관: 홍채, 신체 에너지로 보는 진료검진 등 다양한 건강체험
건강증진관: 시·군 보건사업 홍보, 사상체질 검사 및 힐링사진 전시
의료산업관: 다양한 건강기능제품과 의료기기 전시 체험

명승권 교수 10/26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김동성 코치 10/27 여러분들udo 금메달 건강을 찾으세요
한영웅 대표 10/28 약이되는 발상
박상은 원장 10/29 전인치유의 꿈
권오중 박사 10/30 건강과 비타민
김병조 교수 10/31 웃음으로 건강한 하루

자연과 힐링이 함께하는 치유체험 프로그램 | 모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 |

자연휴양관 편백치유관
치유체험관 재활승마관

청소년 힐링 댄스 페스티벌, 음악출범기 대회, 스피닝 공연, 난타힐링공연, 건강한마당, 응급처치 경연대회, 건강체조공연

주최: 전라남도 | 주관: 장흥군 | 후원: 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 후원: 보건복지부, 대한통합의학협회